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최형임¹, 송인욱^{2*}

¹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Hyeong-Im Choi¹, Inuk Song^{2*}

¹Dept. of Social Welfare, Yeungjin Cyber College

²Dept. of Social Welfare,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노인 396명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후,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효능감을 매개하여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r this study, data were gathered from 396 adults over the age of 60 years in a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in D Metropolitan Ci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Moreover, higher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Furthermore,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using digital dev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is increased by the medium of self-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measures for improving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were discussed.

Keywords : Elderly,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Inuk Song(Daegu Cyber Univ.)

email: inugi@dca.ac.kr

Received March 5,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April 7,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대변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3.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웃돌아[1],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길어진 노년기의 연장은 노인 부양, 역할 상실, 소통의 단절,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소통의 단절은 노인들에게 사회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을 주며, 노인들의 삶을 더욱 더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2].

단기간에 걸친 정보화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노인 세대에 있어서 이들 간의 정보 격차는 정보화 사회에 편승하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소외되면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3].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배제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은 노인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노년기의 정보활용능력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정보습득, 의사소통, 여가활동 등은 노인의 삶의 만족 및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4]. 세대 간의 분리를 넘어 서서 젊은 세대와의 유대강화 및 적극적인 정치·사회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 부여 등 인터넷 사회 활동 참여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재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은 이들의 노후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져 왔다. 2000년 이후 정보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의 정보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기존 연구들 역시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5], 데스크톱 기반의 인터넷 이용경험이나 정보활용 수준과 생활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6-7]이거나 정보화 교육과 생활

만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8] 일반적인 반면, 노인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 관계를 다룬 연구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활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주목했다.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소 및 새로운 기기와 기술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9-10] 인터넷 이용을 낮설게 느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이용, 이를 통한 인터넷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년기 정보활용을 통한 사회적 참여 욕구가 높더라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효능감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지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의지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는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시선을 인식하고 있을 때 충분한 역량 발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의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오늘날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빠른 정보화는 노인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일상생활은 물론 나아가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정보화와 노인의 긍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관계형성은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춰주거나 노인의 고독과 소외를 완화시켜주며[12-14], 새로운 사회관계를 강화시켜 생활 만족이 향상될 수 있음을[15-16]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보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심각한 정보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4].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양극화, 사회배제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17], 사회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으로 보는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인으로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 등 3개 영역에서 모두에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검색, 물건구매,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사회관계망을 통한 교제활동 등에 있어서의 취약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의 독립성 증진과 함께 사회와 세대 간의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산업은 첨단 분야라 노인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젊은 층보다는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에게 더욱 유용함을 고려해 보더라도 노인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2.2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심리적인 적응과정의 결과로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노화과정에서 따른 사회·환경적·생리적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여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5].

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에 계속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면 사회적 역할에서 분리된 노인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9]. 이를 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상황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생활 전체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로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욕구의 성취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노화가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재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활용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디지털 정보활용을 잘 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의 경우, 정보 기기를 이용한 여가생활과 문화 향유는 활용의 차이에 따라 노년기 삶의 모든 면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20],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우울감과 고독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21]. 아울러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22], 고령임에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므로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의 인터넷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와 함께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의 제공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정보화 교육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8], 스마트폰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노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보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24].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의 정보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 향상과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노인의 정보 활용은 소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을 증가시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적극적인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3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과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포괄한 자기역량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감을 의미한다[25]. 특히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욕이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26] 적극적으로 정보화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기 어렵다. 물론 노인의 정보활용은 분명 노인들에게 도전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은 이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5] 나아가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활용 및 수용으로 사회참여와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획득함은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노인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어려워하고 상황에 대한 행동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새롭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노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의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고, 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4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최근 인간의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인지적 관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문제해결과 과제수행에 심리적 자신감을 줌으로써 행복감이나 긍정적 생각 또는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7]. 이와 함께 자기효능감이 충분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역량이 아직은 건재하며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함을 인지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기효능감의 저하는 노인에게 만성적인 무력감과 의욕상실 등을 야기한다.[28]. 즉, 노인들은 자기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이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반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2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행능력이나 수행성과가 높게 나타나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자기효능감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수준이 정적상관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노인에게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유발시켜, 노인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생활만족 수준을 상승하게 함을 확인한바 있다[2,28].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현재의 생활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노인의 삶 전반에 걸쳐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5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은 자신이 세운 목적달성을 위해 행동통제와 행동실천을 유지하는 빈도가 높고, 자신감과 적극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31-32]. 또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으로서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29].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과 과제수행에 심리적 자신감을 줌으로써 행복감이나 긍정적 생각 또는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7]. 노인의 정보활용 능력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새로운 도전임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노인의 특성상 제한되어 왔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인의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인터넷활용만족 그 자체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노인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존감 등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좋게 해주고,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33]. 결국 정보활용능력의 습득을 통해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자신감을 줌으로써 노인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며,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으로써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3].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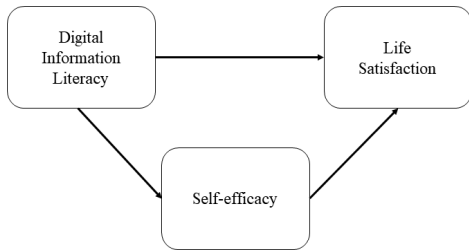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D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PC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4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노인 400명이며, 유효 응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에 대한 면대면 설문조사(face-to-face survey)로 실시하고, 조사원이 응답 내용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 내 응답한 3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측정변수 및 도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도구

로서 구조화된 설문지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세부내용 및 문항구성은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은 PC나 스마트폰의 이용수준과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질문 5문항,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 8문항,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 14문항,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3.1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미래창조과학부(2019)에서 연간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정보 격차 실태조사의 정보 격차 지표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총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나 정보의 검색 및 활용, 생활편의(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오락 및 여가(인터넷게임, 음악영화감상), 의사소통 및 교제활동(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사회참여활동(SNS, 커뮤니티활동)에 대해 1점(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부터 5점(매우 자주 활용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34$ 로 나타났다.

3.3.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홍혜영(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척도(SES: Self Efficacy Scale)와 Ryckman 등(1982)이 개발하고 오해룡(2010)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8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30$ 로 나타났다.

3.3.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Harvighust, Tobin(1961)이 개발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Z)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3문항, 자아성취감 4문항, 노화에 대한 태도 4문항, 현실만족감 3문항 등 총 14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46$ 으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이분변수의 경우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고,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SPSS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을 투입하여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96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215명(54.2%), 여자가 181명(45.8%)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로는 75~79세가 165명(41.6%), 70~74세가 97명(24.6%), 80세 이상 74명(18.6%), 65~69세 50명(12.7%), 60~64세 10명(2.5%)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가 107명(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105명(26.3%), 고졸 101명(25.5%), 대졸 이상 83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346명(87.3%)이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의 경우 뉴스나 정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asures	Category	n	%
Gender	Male	215	54.2
	Female	181	45.8
Age (year)	60~64	10	2.5
	65~69	50	12.7
	70~74	97	24.6
	75~79	165	41.6
	over 80	74	18.6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107	27.1
	Middle School	105	26.3
	High School	101	25.5
	University or more	83	21.1
Job	Yes	50	12.7
	No	346	87.3
All		396	100

보의 검색 및 활용은 평균 2.71(SD=1.26), 인터넷 बैं킹이나 인터넷 쇼핑 등 생활편의는 평균 1.83(SD=1.09), 인터넷 게임이나 음악·영화감상 등 오락 및 여가는 2.86(SD=1.32),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2.07(SD=1.13), 각종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은 평균 3.36(SD=1.25)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평균 3.6(SD=.49),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은 평균 2.96(SD=.56)으로 나타났다.

4.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r=.168, p<.05$)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r=.123, p<.05$)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	SD	Min	Max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Searching for Information	2.7121	1.2661	1	5
	Banking or Shopping	1.8333	1.0966	1	5
	Game, Movie, Music	2.8636	1.3261	1	5
	E-mail or Chatting	2.0758	1.1337	1	5
	SNS	3.3636	1.2525	1	5
Self-efficacy		3.5877	.49500	2.14	4.86
Life Satisfaction		3.6231	.56163	2.00	5.00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1		
Self-efficacy	.123**	1	
Life Satisfaction	.168**	.480**	1

* $p < .05$, ** $p < .01$, *** $p < .001$

4.4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beta = .168, p < .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s	B	SD	β	t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110	.033	.168**	3.375
R				.162
R2				.026
F				11.393**

* $p < .05$, ** $p < .01$, ***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beta = .123, p < .01$)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Self-efficacy

Variables	B	SD	β	t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092	.037	.123**	2.465
R				.123
R2				.013
F				6.077**

* $p < .05$, ** $p < .01$, *** $p < .001$

3단계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beta = .117, p < .01$)과 자기효능감($\beta = .409, p < .001$)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Self-efficacy

Variables	B	SD	β	t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077	.030	.117**	2.568
Self-efficacy	.360	.040	.409***	8.946
R				.439
R2				.188
F				45.856***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Sobel test를 통해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Z값이 3.16($p < .001$)로 나타나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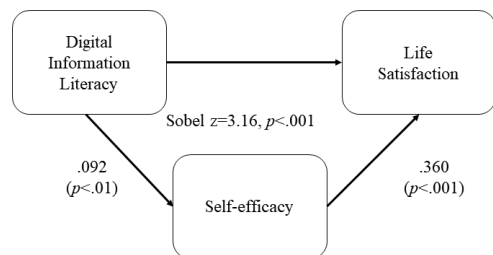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료 수집은 D광역시 소재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39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 또는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9] 결과와 일치하며, 노년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노인복지의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PC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및 사회 관계망의 확장은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따로 살고 있는 가족과의 연결이 용이해져서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될 것이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4]. 따라서 노인의 인터넷 활용이 보편적인 정보활용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 정보화교육 강화,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콘텐츠 개발 보급, 노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 개발 지원, 기타 노인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 추진을 통한 노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활용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 정보활용으로 인한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획득하게 되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 정보 접근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정보활용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화 기기를 통한 유튜브 영상 제작, 1인 미디어 채널의 개설 지원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로의 전환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동료지지집

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정보화교육 강사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세대의 지지집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활동의 수준과 만족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존재 가치의 인식 및 역할 상실감 극복 등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화활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관계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노인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도시가 아닌 읍면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지표를 산정함에 있어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지표가 제외되었다. 이는 후속연구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STAT, 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2018, 2019.
- [2] S. M. Min, "The Effect of Smartphone Education on the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Well-be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5, pp.165-171,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165>
- [3] B. J. Lee, S. H. Myeo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net Applica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Social Networ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14, No.3, pp.269-293, 2010.
- [4] K. H. Ju, D. S. Kim, J. H. Kim,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Digital Divide on Elderly and Difference

- of Gender”, *Social Welfare Policy*, Vol.45, No.1, pp.209-234, 2018.
DOI: <http://dx.doi.org/10.15855/swp.2018.45.2.95>
- [5] M. S. Jung, Y. R.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15, No.1, pp.63-85, 2012.
- [6] M. R. Kim, S. J. Kwon, C. S. Park, “Babyboome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Effect on the Digital Life Satisfaction-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 master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7, pp.113-136, 2012.
DOI: <http://doi.org/10.21194/kjgs.57.201209.113>
- [7] H. S. Lim,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use of informat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Doctor's Thesis, Graduated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Deagu, Korea, 2010.
- [8] Y. J. Shin, M. J. Koo, “An explorative study on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4, pp.119-147, 2010.
- [9] M. Y. Kim, Y. H. Kang, D. Y. Jung, G. J. Lee, “Older Adults' Smart Phone Use and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4, No.1, pp.13-22, 2013.
DOI: <http://doi.org/10.22284/qr.2013.14.1.13>
- [10] S. J. Yang, K. H. Yoon, H. S. Kim, “Mobile Health for Health Management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geriatrics*, Vol.17, No.1, pp.1-6, 2016.
DOI: <https://doi.org/10.15656/kicg.2016.17.1.1>
- [11] S. T. An, J. Y. Lee, “Older Adults' Health Promotion via Mobile Applicati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tigm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63, No.2, pp.113-142, 2019.
DOI: <https://doi.org/10.20879/kjics.2019.63.2.004>
- [12] H. Yoon, Othelia Lee, K. Beum, Y. Gim, “Effects of Online Soci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e*, Vol.16, No.5, pp.623-637,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623>
- [13] Y. J. Lee, “The Effect of Information Condition on Mental Health among Elder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1, No.10, pp.17-29, 2013.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0.017>
- [14] J. H. Ahn, K. C. Lim, Y. J. Lee, K. S. Kim, “Effects of Computer/Internet Game Pla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lf-Contro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e*, Vol.11, No.7, pp.406-417,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7.406>
- [15] H. White, “A randomized controlled trail of thpsychosocial impact of providing internet training and access to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Mental Health*, Vol.6, No.3, pp.213-221, 2002.
DOI: <https://doi.org/10.1080/13607860220142422>
- [16] S. Sum, R. Mathews, I. Hughes, A. Campbell, “Internet use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2, pp.208-211, 2008.
DOI: <https://doi.org/10.1089/cpb.2007.0010>
- [17] J. van Deursen, J. van Dijk,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Vol.16, No.3, pp.507-526, 2014.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13487959>
- [18]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2018”, 2019.
- [19] P. K. Adelma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Vol.49, No.6, pp.277-285, 1994.
DOI: <https://doi.org/10.1007/s11199-006-9134-8>
- [20] W. S. Kang, M. S. Kim, J. U. Ko, “Effects of the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3, No.1, pp.199-214, 2013.
- [21] M. Y. Kim, H. J. Jun,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2, No.3, pp.343-370, 2017.
- [22] G. M. Park, M. A. Kim, “Effects of Internet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the middle-aged and the ol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34, pp.99-131, 2019.
- [23] H. Y. Cho,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t old age in accordance with internet usag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3.
- [24] M. J. Kwak, S. E. Roh, Y. G. Kwak,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Satisfaction of Elderly Welfare Center on Elderly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3, pp.486-495, 2017.
- [25]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York: Freeman and company, 1997.
- [26] P. S. Kim, H. S. Kim, M. S. Lee,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17, No.1, pp.25-47, 2014.
- [27] Y. E. Kim, Y. S.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using welfare center on happiness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2, No.4, pp.217-238, 2017.

DOI: <http://doi.org/10.21194/kigsw.72.4.201712.217>

- [28] I. Y. Jing,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and the Self-Efficac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go-Integrity",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2, No.4, pp.423-438, 2017.
DOI: <http://doi.org/10.21097/ksw.2017.11.12.4.423>
- [29] S. Tedman, E. Thornton, G. Baker,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core beliefs and perceived self efficacy in adult with epilepsy", *Seizure-European Journal of Epilepsy*, Vol.4, No.3, pp.221-231, Sep. 1995.
DOI: [https://doi.org/10.1016/s1059-1311\(05\)80065-2](https://doi.org/10.1016/s1059-1311(05)80065-2)
- [30] S. G. Robinson, E. R. Pizzi, "Maximizing stroke recovery using patient self-care, self-efficacy", *Rehabil Nurs*, Vol.28, No.2, pp.48-51, 2003.
DOI: <https://doi.org/10.1002/j.2048-7940.2003.tb02028.x>
- [31]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York: Prentice-Hall, 1986.
- [32] B. Oldenburg, K. Glanz, M. French, "The application of staging models to the understanding of health behavior change and the promotion of health", *Psychol Health*, Vol.14, pp.503-516, 1999.
DOI: <https://doi.org/10.1080/08870449908407343>
- [33] M. S. Lee,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7, pp.289-313, 2012.
DOI: <http://doi.org/10.21194/kigsw..57.201209.289>

송 인 욱(Inuk So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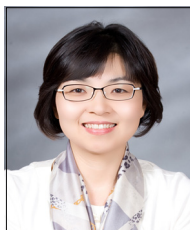
- 1999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지역복지

최 형 임(Hyeong-Im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8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정신건강, 정신보건